

2019 시리아 “희망의 센터”(Hope Center) 프로젝트

- 기독교 난민 돌봄 및 교회 공동체 재건 -

I. 시리아 내전 개관

8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시리아는 내전 이전에는 중동 국가 가운데서는 상당히 평화롭고 중산층이 많았던 국가였다. 1920년까지 시리아는 오스만 제국(Ottoman Empire)의 일부에 속했으며, 1946년 독립했으나 내전과 쿠데타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 시리아는 1967년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결과로 골란 고원(Golan Heights Region)을 잃었고, 1970년 하피즈 알-아사드(Hafiz al-Assad)가 정권을 잡으며 정치적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그가 사망한 2000년 이후 그의 아들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가 대통령직을 계승하여 지금까지 통치하고 있다.

수년 동안 엄청난 파괴와 인명 피해를 발생했던 시리아 내전 사태는 매우 단순한 시위를 통해 발전했다. 2011년 5월에 발생한 반정부 시위는 주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개입으로 내전으로 발전했다. 반정부 시위가 내전으로 발전한 주요 원인으로 세 가지 요소가 지적된다.

첫째, 중동의 반정부 시위인 “아랍의 봄”(Arab Spring)이라는 운동이 아랍 지역에서 발생했다.

둘째, 정부의 부정부패와 경제실패가 사회적 불만을 가중시켰다.

셋째, 정치적 개혁에 대한 폭력적 진압이 양상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러나 내전 발발의 원인은 훨씬 더 복잡해서, 계층간의 갈등, 도시와 시골의 분열 그리고 정치적 자유에 대한 탄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부적 갈등은 반정부 시위가 어떻게 급속히 내전으로 발전하고 분파적 갈등으로 확산되었는지 잘 설명해준다.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초기에 정부는 새로운 정당을 허용하는 등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이내 전면적인 무장진압으로 선회하였으며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였다. 내전으로 확산되면서 2013년 4월에 이르러서 시리아 난민은 1백만 명, 9월에는 2백만 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자타리 난민캠프(Za'atari Refugee Camp)와 레바논으로 주로 이주했다. 그 해 시리아 알사드 대통령은 진압을 위해 화학 무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정부의 강공에 반대파는 외국 지하드(Jihadist) 군인들을 끌어들이었으며, 이 급진적 이슬람 무장 세력은

2014년 6월 시리아 라카(Raqqqa)를 수도로 정하고 “Islamic State”(IS)의 탄생을 선포했다. 이후로 IS는 시리아와 이라크에 많은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이슬람 통치 지역으로 선포하고 장악해갔다.

2014년 이후 시리아 난민 가운데 10만 명이 유럽으로 이주했으며 이는 유럽 사회에 난민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의 개입으로 IS가 점령했던 많은 지역들은 다시 수복되었으나, 이들은 로켓포를 발사하고 있으며 여전히 전투는 진행되고 있다. 2017년에 난민의 숫자는 5백만에 이르렀으며 이 해에만 90만 명의 시리아인 난민들이 더 발생했다.

[시리아 반정부 주요 무장 세력]

주요 연합 전선	목적
Supreme Military Command	2012년 아랍과 걸프 지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군대
Syrian Islamic Front	시리아 이슬람 무장 군대
Syrian Liberation Front	시리아 내 이슬람 무장 세력들의 연합
주요 활동 세력	목적
Jabhat al-Nusra	“Islamic State”의 국제적 비전을 실현하려는 군대
Ahrar al-Sham	시리아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군대
Farouq Battalions	종교인과 과격 무슬림의 연합 군대
Liwa al-Tawhid	수도 알레포(Aleppo)의 IS 방어 군대
Saqour al-Sham	이들렙(Idlib)에서 가장 강력한 IS 이슬람 무장 군대
Ansar al-Islam	다마스커스(Damascus) 일대의 IS 이슬람 방어 군대
Ahfad al-Rasul	암살과 저격을 주된 임무로 수행하는 이슬람 군대
Ghurabaa	반정부 세력들을 규합하여 활동하는 이슬람 군대
Democratic Union Party	쿠르드(Kurdish) 족의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중립적 군대

II. 내전 이후 시리아 상황

1. 내전의 피해

● 인명 피해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이후 50만 명의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이 가운데 어린이도 55,000명에 이른다. 내전은 외부 세력들이 합세하면서 더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군이든 반군이든 어느 군대가 한 지역에 진주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전투가 시작되고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다.

● 사회기반 시설의 붕괴

95%의 시리아 인구가 의료시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70%의 국민이 정화된 식수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의 다수가 파괴되었으며, 국가 경제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85%의 국민이 생존을 위해 폐허 더미에서 가난과 싸우고 있다.

- 교육 시설 파괴

9년 째 접어든 내전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부상당한 가족 혹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을 떠나 난민촌으로 대피하고 있다. 전체 아이들 가운데 절반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

- 난민 발생

청년 중심의 반정부 시위는 과격파 무슬림의 개입으로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500만이 넘는 해외 이주 난민이 발생했다. 이들은 주변 국가와 자국 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거주 난민들의 숫자는 660만에 이른다.

[2019년 시리아 해외 거주 난민 현황]

국가	난민	국가	난민
터키	360만	이집트	13만
레바논	95만	요르단	67만
이라크	25만	합계	약 560만

2. 시리아 국민들이 겪는 문제들

- 질병과 식량부족

공중위생 시설의 미비와 정화된 식수의 부족으로 설사와 콜레라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아이들의 경우 백신의 적절한 접종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으며, 열악한 거주 환경으로 인해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식량의 부족과 분배는 영양실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

- 경제의 파괴와 가난

내전은 거의 모든 사회경제 시설들을 파괴했으며 이는 시리아 경제를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전체 시리아 국민의 85%가 2천원으로 하루의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파괴된 사회경제 시설과 추락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다.

- 폐허 속 재건

알레포(Aleppo)와 이들렘(Idlib) 주에서 여전히 전투가 진행되고 120만의 난민과 300만 명의 시리아인들이 내전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집과 일터를 떠났던 시리아 국민들은 조금씩 귀향하고 있다. 그러나 귀향자들에 대한 시리아 정부의 조사와 고문 혹은 체포 및 강제징집 등은 자국민들의 귀향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귀향한 난민들은 폐허 더미 속에서 재건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Ⅲ. 시리아 기독교 현황

시리아 기독교 공동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성령강림 이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 다마스쿠스(다메섹)로 이주한 기독교 공동체를 핍박하기 위해 길을 나섰던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후 여러 세기를 걸쳐 기독교 선교가 각 교파 간에 진행되어 복음이 전파되었으나 기독교인은 지금까지 소수로 남아 있다.

시리아 인구	기독교인	비율
18,284,000명	814,000명	4.5%
교파 및 교단	개신교, 정교회, 가톨릭, 독립교단, 자유교단 등	

IV. 시리아의 희망, “희망의 센터”(Center of Hope)

1. “희망의 센터”의 역할

- “희망의 센터는 오픈도어의 7년 캠페인 “Hope for Middle East”에 속한 프로젝트로서 내전으로 흩어진 시리아와 이라크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을 돕는 사역이다.
- “희망의 센터”는 지역 교회가 지역 공동체의 재건과 인도적 지원 그리고 영적인 돌봄을 위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난민 돌봄 센터이다.
- 센터의 장소와 건물은 임대를 하거나 지역 교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영적,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육체적 돌봄과 지원을 한다.
- 생존을 위한 경제 수단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와 가족들이 장기간 시리아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희망의 센터”는 두 가지 사역에 중점을 둔다. 영적인 지원 및 실제적인 도움을 지원한다. 개인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지며, 영적인 성장과 현실적인 자립을 증진하도록 지원한다.

2. “희망의 센터” 사역

사역 영역	활동	목적
영적 지원	성경 및 기독교 서적 배포	교회 재건 및 지도자 양성
	제자훈련 및 성경공부 실시	교회 재건 및 전도 활동
	기도모임 및 리더십 훈련	교회 재건 및 지도자 양성
정서적 지원	정서적, 심리적 건강의 돌봄	트라우마 상담
	상담 및 지도	목회 상담
	영화 상영 및 스포츠 활동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
물질적 지원	식량 및 생필품 지원	생존 활동
	건강 회복 및 의약품 지급	질병 치료 및 예방
	파손된 주택의 복구	주택 수리 지원
	학교 운영 및 교육 활동	아이들 및 청소년 교육
	소규모 대출 사업	자립 지원(Revolving Fund)

3. “희망의 센터” 지원 및 계획

오픈도어의 “중동에 희망을”(Hope for Middle East) 캠페인에 속한 “희망의 센터” 프로젝트는 시리아와 이라크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과 기독교 난민들을 돌보기 위한 사역이다. 이를 통해서 복음 전파와 교회 공동체의 재건을 목표로 한다. 무슬림 난민들에게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며, 신자들에게는 자립과 교회 공동체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희망의 센터" 자료 사진]

